

AdASIA 2023 Seoul



사진으로 만나는 애드아시아 2023 서울



AdASIA 2023 Seoul

Transform. Play. Connect.

THE DIGITAL RACE
READY. SET. TRANSFORM



애드아시아 2023 서울이 10월 24일(전야제)부터 27일까지 4일 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광고산업의 재정적, K-광고의 경쟁력, 애드테크, DOOH 등 6개 테마로 진행된 컨퍼런스와 ▲케이스스터디 ▲오픈스테이지 ▲국제학술대회 등 총 70개 세션이 진행되며 행사장을 열기로 가득 채웠다.

10 / 25

10월 25일 오전에 열린 개막식은 김낙희 애드아시아 조직위원장의 개회사와 직전 개최지인 마카오 조직위원회로부터의 지휘봉 전달식이 있었다. 김낙희 위원장과 개회선언을 한 홍보대사 김연아는 “(저도) 알고보니 160여편의 광고를 찍었다. 저 또한 광고인”이라는 인사말로 장내 광고인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오후 개막식 만찬과 함께 진행된 CMG(Changemakers for Good)어워즈에서는 김정아 이노션 부사장이 산업리더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휠스 온 휠스’ 기술 캠페인으로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 1 6개 테마로 진행된 컨퍼런스 전경
- 2 개회사를 선언하는 김낙희 위원장
- 3 지휘봉 전달식
- 4 김낙희 위원장과 개회선언을 한 홍보대사 김연아



5



6



7

I. 추진 배경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개념

- 개념
 -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를 대폭 완화하여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옥외광고물 테스트베드)
 -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 법적 근거
- 해외 유사사례
 -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자유표시구역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10 / 26

26일은 이원진 삼성전자 사장의 ‘Framing the future’를 시작으로 ▲AI시대 광고의 미래(김종현 제일기획 대표) ▲머신러닝과 광고의 미래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확장과 ATV/CTV ▲Web 3.0 그리고 브랜드 등 광고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다양한 컨퍼런스 세션이 진행됐다.

행사장 2층에서 열린 학술대회서는 ▲광고의 새로운 정의 ▲AI와 디지털 광고 ▲자유표시구역 운영현황 및 추진 계획 ▲디지털사이니지의 공공성 등을 주제로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이번 애드아시아 서울 행사에서 처음 개최된 비즈니스쇼케이스 전시에는 광고 및 애드테크 관련 30개 기업, 50개 부스가 참여해 국내외 광고인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도 제공됐다.

비즈니스쇼케이스 전시장 한 켠에서는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오픈스테이지가 열렸다. ▲프로그래매틱 DOOH ▲메타버스 ▲디지털휴먼 ▲일본·중국의 광고산업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등 광고계가 주목하는 이슈들을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연했다.

- 5 이원진 삼성전자 사장의 ‘Framing the future’ 컨퍼런스 강연
- 6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의 ‘AI시대, 광고의 미래’ 컨퍼런스 강연
- 7 학술대회 발표 현장
- 8 학술대회 패널 토론
- 9 서울 브랜딩 아시아 대학생 공모전 프레젠테이션 현장

AdAsia 2023 Seoul

Presentation for Next Host City Macao



11

10 / 27

27일 폐회식은 다음 ‘에드아시아 2025’를 개최하는 제니 마카오 광고협회 회장의 인사로 시작했다. 제니 회장은 “지난 에드아시아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아쉬웠는데, 2025년에 다시 개최할 기회가 생겼다면 마카오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CCA 2023(Creator Contents Awards 2023) 수상자들과 서울도시브랜드 아시아 대학생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끝으로 스리니바산 스와미 아시아광고연맹 회장은 “많은 귀빈이 참여했고 너무나 대단한 행사였다. 우리로 하여금 지난 3일 동안 전 세계가 하나가 되게 했다. 많은 좋은 발표가 있었고 너무나 좋은 경험을 새로운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폐회사를 밝혔다.

김낙회 조직위원장은 “이번 ‘에드아시아2023 서울’ 행사는 대외적으로 아시아 광고계에서의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 줬고 대내적으로는 디지털시대의 광고 산업을 재정의함으로써 산업의 위상과 광고인들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행사 의의를 말했다. 📌



12



13

11 제니 마카오 광고협회 회장의 차기 개최도시 소개
 12 송승환 피엠씨 프로덕션 대표의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컨퍼런스 강연
 13 CCA 2023 수상자 사진